

확신을 가지고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경상에 구원론과 불경상에 구원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동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루 둘러서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쓰여 있죠?

그런데 성경말씀이 전부 영적인 말씀이라고 쓰여 있죠? 영적 말씀이라는 말은 신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선악과가 죽이는 영이예요, 살리는 영이예요? 죽이는 영이니까 죽이는 신이죠? 죽이는 신이니까 마귀예요, 하나님이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똑바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영적 말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은 전부 신을 가리키는 말이지, 인간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육적인 과일을 가리킨 것도 아닌란 걸 알 수 있죠?

믿음을 모르는 기독교

아담과 해와 하나님 속에 이제그대로 마귀의 영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고 마귀가 주체영이 된 버린 거죠? 마귀가 나라는 의식이 되는 순간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했어, 안 변했어? 해와는 여자로 변했고 아담은 남자로 변한 거죠? 마귀 신이 선악과라는 자체를 해석할 줄 모르는 기독교 단체는 성경을 잘못 믿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 몰라? 사람이 믿는 마음이 믿음이 라고 그래요. 교만한 열심이 나오면 참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했으니까 영생의 영배에는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의 영을 선물로 준다고 해야 이치가 맞죠?

오늘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잘못 믿고 있으니까 전부 마

귀의 조종을 따라서 믿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전부 죽어, 살아? 성경 말씀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생의 영이라는 것은 사망의 영이 되는 나라는 의식의 영을 꺾어서 죽여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믿음이, 승리하지 못한 실패의 영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승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승리의 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해석이 되는 것이지 마귀 입장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이 6천년 전에 마귀한테 저가지고 두 하나님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인간으로 변해서 오늘날 60억 인구가 이 지구 땅 위에서 살고 있죠? 사람들이 전부 전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었는데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인간으로 변했던 고로 오늘날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살고 대부분 죽죠?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것이 마귀가 주체영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을 해야 이치가 맞죠?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영이 되는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알아, 몰라? 그걸 모르니까 선악과가 뭐 사과다, 배다, 뭐 복숭아다,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은 영적 말이나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죠?

그런고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창세기에서 '옛새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느니라' 다 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



구세주 조희성남

귀 소리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의 짝을 찾아보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옛날에 하나님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가짜 구세주 예수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마귀새끼야.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했으니까 예수는 마귀새끼가 틀림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단이 틀림없죠? 기독교가 이단인데 이 사람더러 이단이라고 하고 사비비 종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육중에 집어넣은 사실이 있죠?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사람이 초창기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죠?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태풍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여름장미를 못 지게 하겠다." "우리나라 계

속해서 풍년들게 하겠다!" 풍년드는 건 영원무궁도록이냐- 영원무궁도록. (성도일동 박수) 또 "우리나라와 북한과 전쟁이 못 일어나다." 이북 사람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남만 쳐들어가면 이남에는 양식이 많기 때문에 양식을 갖다가 먹으면 굶어죽을 사람이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김정일의 마음을 전쟁 못 일으키게끔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가짜야. 아시겠어요? 전쟁 일어나면 이것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 그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22년째 역사를 하는 가운데 공산주의도 없었고 태풍이 못 불어오게 했고 이제그대로 여러분들 이번에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를 통해서 올 때에도 태풍이 서해안 쪽으로 비껴갔죠? 그다음에 두 번째 태풍은 일본 열도로 불어갔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바람이라는 게 곧장 불어오는 성질이 있는 거지, 꺾어서 일본 열도로 가. 그게 바로 이 사람이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성도일동 박수) 일본 열도

로 기억자로 꺾어서 태풍이 불어가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태풍만 못 불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름장미가 6월 15일부터 온다고 얼마나 방송에서 떠들었어. 여러분들 귀가 있으면 다 들었지? 6월 15일부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 그러나 구세주가 틀림없어, 구세주가 틀림이 있어? 이 사람이 앞으로 점점 능력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강해지니까 앞으로 좀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죠? (성도일동 박수) 앞으로 서해안 쪽에서 하루에 은금보화를 실은 천척의 배가 몰려든다고 격양유록에 쓰여 있는데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

제단에 열심히 나오면 뭐든지 잘된다

여러분들이 구세주한테 속 빠졌으니까 나오는 거야, 구세주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왜 속 빠질까?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렇죠? 말씀 그대로 되니까 앞으로 이 구세주가 엄청난 역사를 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나 승리제단에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엄청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기를 22년째야, 지금, 22년째! 이 사람이 이렇게 큰소리치니까 여러분들이 속 빠져가지고 속아서 나오는 거야, 맞으니까 나오는 거야? 맞으니까 무릎을 치면서 나오는 거죠? 또한 승리제단 열심히 나오면 하는 일이 잘못 되어가지고 굶어서 죽는다면 여기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으니까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제단에 열심히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당신 병이 낫는다면 낫잖아, 안 낫잖아? 당신 병이 낫는다면 꼭 낫죠? 의심을 하면 안 낫지만 의심을 안 하

고 확신을 가지면 낫는다고 그러죠?

우리제단에 매일 나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안 모인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나오기 때문에 여기 빈자리가 많아요? 그게 아니지? 근본은 바로 마음이야. 마음이 믿어지면 나오게 되어 있고 마음이 안 믿어지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안 믿을 요건이 없죠? 앞으로 은금보화를 실은 배들이 하룻저녁에 천척의 배가 몰려와서 은금보화를 우리 승리제단에 보내준다면 승리제단 식구들이 다 때부자가 되겠죠? 때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겠다고 해야 내가 금을 주지, 전도 안 한다면 금덩어리 안 줘. (웃음)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제단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뭐 장사를 못 한다, 사업을 못 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업 못하는 사람. 장사 수완이 없는 사람이 하는 변명이에요. 사실은 제단에 와서 열심히 예배보고 이제그대로 희망을 크게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웃는 낯으로 장사를 하게 돼, 우는 낯으로 장사를 하게 돼? 웃는 낯으로 장사하게 되면 장사가 잘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제단을 열심히 나와야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해서 걱정 근심 없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의 몸에서 은혜가 내리면 농사가 저절로 잘 되겠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 의심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뭐든지 하시라는 겁니다.*

2002년 7월 14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5장 모세》 (11) 종살이하던 고센 땅을 떠나다

(11) 종살이하던 고센 땅을 떠나다

정월(아빔월) 십사일 한밤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궁궐 안이거나 거리의 가난한 집이거나 애굽 사람의 집이면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초상(初喪)이 낫던 것입니다.

그것은 왕자로부터 시작하여 육에 갇힌 죄수의 아이에 이르기까지 만자들이란 만자들은 모조리 죽고 심지어 가족의 첫 새끼들까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투드모세 3세는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부라 궁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울음바다의 거리를 지나 애굽 왕에게 갔습니다.

애굽 왕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네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애굽에서 나가 주시오. 당신네 원대로 양과 소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시오. 어서 빨리 나가 주시오. 그리고 이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서 그치게 해 주시오"

애굽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때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 달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떡 반

죽이 부족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솥에 써서 어께에 둘러메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애굽인들에게 은붙이와 금붙이와 의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은 "우리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만 해준다면, 이따위 은금패물과 의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고센 땅을 떠나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찌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왕의 급한 부름을 받고 애굽 왕 투드모세 3세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라암셋의 국고성에 다녀올 동안, 고센 땅에 흠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둠의 국고성 근교에 위치한 숙곳(Succoth)으로 집결하였습니다. 멤피스와 가까운 카이로 성읍에 살던 모세의



열 번째 재앙 : 애굽인의 장자들이 모조리 죽은

아비지 아브람은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멤피스로 가서 피라미드 석실에 보관되어 있던 요셉의 유골을 수습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람의 일행은 이스라엘의 장자 단에 의해서 제작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최초로 기록한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그 석실에서 거두어들이 후에 숙곳으로 향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서는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 그 중간에 전쟁에 능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의 나클(Nakhi)과 타맛(Tamad)을 경유하고 이어서 컬러캐년(Coloured Canyon; 체색계곡)을 통과하여 누웨바(Nuweiba)에 이르자 홍해 바다(아카아만)로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누웨바 해변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지친 몸을 추스르려고 했습니다.

한편 애굽 왕 투드모세 3세는 고센에서 삼일 길쭉 되는 시나이반도의 중심지 나클(Nakhi)에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빠져나가자 애굽 사람들은 지금껏 히브리인들에게 부러워하던 일들을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한 왕과 신하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은 민심이 더 흥흥해지기 전에 즉각 병거에 말을 매워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시나이반도의 나클(Nakhi)을 지나 타맛(Tamad)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경로까지 쫓아온 투드모세 3세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타바(Taba)국경을 통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애굽의 국경을 넘지 아니하고 타맛(Tamad)에서 진로를 바꾸어 누웨바(Nuweiba)쪽으로 향한 첩보를 입수한 애굽의 왕은 마음속으로 '그들이 독 안의 쥐와 같은 형국이 되었다'라며 패자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바로(애굽 왕 투드모세 3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